



# 장애인을 바라 보는 우리의 시선

길을 지나가다 나를 뵈히 들여다보는 사람의  
시선에 민망하고 불쾌한 느낌을 받는 것처럼,  
장애인도 자신의 겉모습만으로 마치 다른 세계  
사람인 양 바라보는 그 시선들에 불쾌함을  
느낀다.

장애인의 수

유형별 분포

총 약 4.9%

# 장애가 있다고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.

지체장애  
125만 4천명

사람들은 장애가 있으면 일을 못한다는  
편견을 가지고 있다.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.  
사례를 들어 보면 이희아씨는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로  
많이 알려져있다. 선천성 사지기형 1급 장애를 가지고  
있어 손가락이 양손에 2개 뿐이다. 하지만 이러한  
어려움을 극복하여서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 
될 수 있었다. 이는 장애가 있어도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  
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.

청각·언어장애  
32만 1천명

시각장애  
25만 3천명

기타...  
기만 7천명



위 그림은 시각 장애인이 보는 시각이고 양쪽의  
시야가 좁게 보여서 봤을 때 답답한 느낌이 든다  
이처럼 장애인의 입장이 되었을 때의 느낌을  
알고 이해가 높아 질 수 있다.

# 장애인을 위해 할 수 있는 것

가장 중요한 것은  
시선입니다.  
우리는 서로의 '다름'이  
아닌 서로의 '답음'의  
시선으로 바뀌어야 합니다.  
다른 점을 부각하려 하기보다는 그들이  
우리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완전히  
다르지도 않다는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.